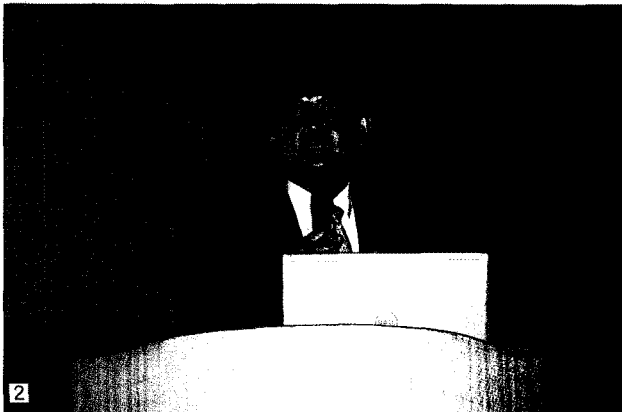


# 개방성, 통합성의 코닥 프리너지 워크플로 솔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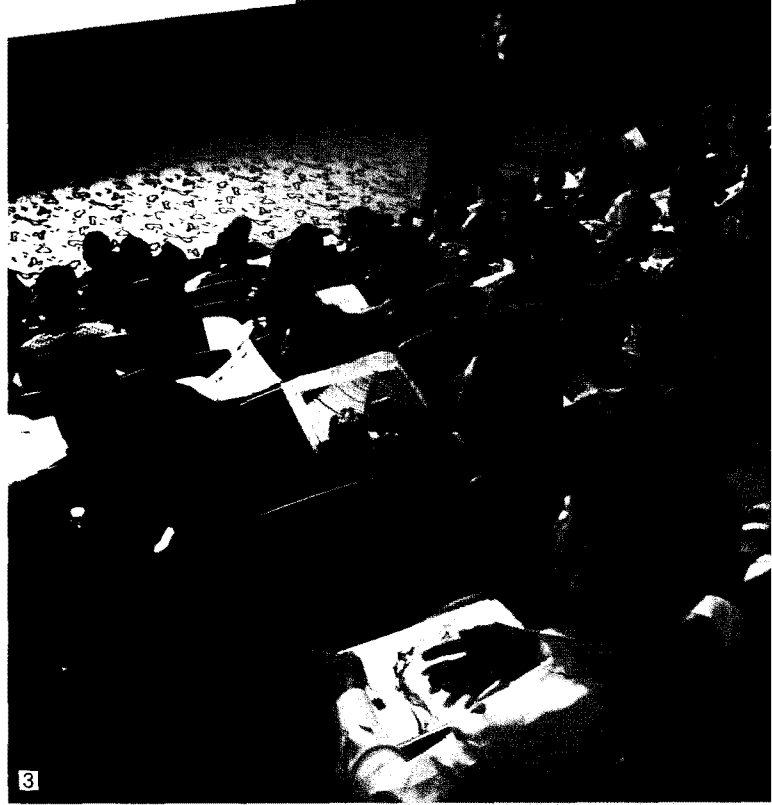
한국코닥(주)(대표이사 이수범)은 지난 10월 14일 서울 충무로에 위치한 대한극장 1층 상영관에서 코닥 통합 워크플로 솔루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프리너지 워크플로 솔루션이 갖고 있는 장점과 이를 활용한 확장된 작업, 어떻게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코닥의 이수범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코닥의 뛰어난 워크플로 솔루션을 통해 고객들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장은테크의 송동근 대표는 “코닥의 프리프레스 부문 공식 대리점으로서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 고자 세미나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고객들을 찾

품질 관리

인사말 관리 개인관리

Print Press  
 Press  
 Post Press  
 Web Portal  
 MES, E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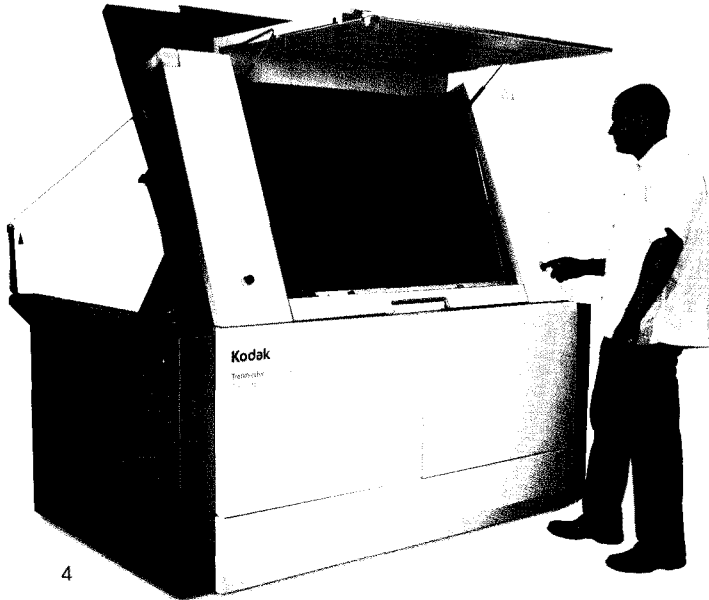
1 인사말을 하고 있는 장은테크의 송동근 대표  
 2 인사말을 하고 있는 한국코닥의 이수범 사장  
 3 세미나 참석자들이 코닥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아 뵙기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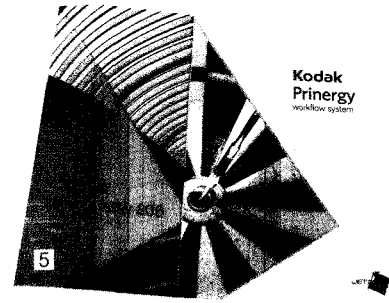
## 코닥 프리너지 워크플로 솔루션

코닥의 프리너지 워크플로 솔루션은 Unified 워크플로 솔루션의 핵심으로 일반 인쇄, 패키징 및 디지털 인쇄를 총 망라한다. 어떤 프리프레스 시스템과도 통합이 용이하며 그 중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워크플로다. 타사 장비와도 연동할 수 있으며 이 같은 개방성과 통합적 워크플로 환경의 구축으로 세계적으로 1만5천여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특징점으로는 △ 신뢰성, 이중화 및 관리: 하드웨어 오류로 인한 주 서버의 장애 발생 시에 보조 서버가 주 서버의 역할을 대체해 데이터베이스까지 완벽하게 복원한다. 또한 작업의 자동 저장 및 복원을 지원하여 작업 재출력을 간편하고 쉽게 처리한다. 코닥이 강조하는 프리너지 워크플로 솔루션의 특징점은 다양하다. △ 파일 프로세싱: 편집기와 리포트 생성이 가능한 프로파일 기반의 사전 점검 툴과 사전 설정에 따른



4



4\_ 설치면적은 크게 줄인 트랜스세터 800  
5\_ 트랜스세터 800과 프리너지의 카탈로그

자동 벡터 트래킹, 엔드 투 엔드 컬러 관리를 지원한다. △ 진보적인 자동화 를 지향해 경영관리시스템으로부터 자동으로 임포지션 판형이 생성되어 워크플로에 적용된다. 페이지가 자동으로 판형에 할당되는 기능도 갖고 있다. △ 디지털 인쇄기와의 연동이 뛰어난 것도 특징이다. 코닥 디지털마스터, 넥스프레스 뿐만 아니라 타사의 디지털인쇄기와의 원활한 연계작업이 이뤄진다. 작업 상태 및 장비상태, 프리너지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작업의 이력이 남는 것과 경영정보시스템 및 전자적 자원 관리시스템과 완벽한 정보의 공유를 지원한다. △ 프리너지 Evo PS Direct 립은 현재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서체를 무리 없이 지원한다. 프리너지 Evo의 UI 및 장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PS서체 및 PS렌더링을 지원하여 PDF를 생성하지 않고 PS 및 EPS파일을 직접 Ripping 하도록 하는 한국 실정에 맞는 립시스템이다.

#### 코닥 JDF 솔루션

CIP4의 공정 자동화 규격에 대한 전반적인 명칭을 의미하는 JDF는 기존에 수작업으로 종이에 작업에 대한 요청을 쓰던 것을 전자 작업 티켓으로 대체했다. 코닥에서는 JDF의 장점에 대해 그래픽 아트 산업에서 작업의 시작에서 끝까지 하나의 일관된 언어를 제공하며 제품 생산, 고객과 경영정보시스템(MIS)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손꼽고 있다. 또한 작업 현장의 워크플로나 경영정보 시스템이 직접 명령 및 제어 언어를 제공하고 확장성이 뛰어난 것도 JDF의 장점이다. 한편, 일부 고객들 사이에서 JDF를 응용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로 잘못 인식하거나 완전히 표준화를 이룬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JDF는 개방성과 확장을 토대로 오류를 수정하고 발전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코닥은 설명하고 있다.

#### CTP의 베스트셀러, 코닥의 트랜드세터 800

코닥의 트랜스세터 800은 지난 1995년 출시된 이래, 전

세계에 걸쳐 6000대 이상을 판매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제품이다. 코닥 만의 스퀘어 스팟 이미징 기술로 코닥 프리프레스의 모든 솔루션인 워크플로, 교정 솔루션, CTP, 판재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부터 선보이고 새로운 플랫폼의 트랜스세터는 12년 동안 꾸준히 판매되었으며 기존의 CTP 가운데 설치공간을 최소화한 제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기존 모델인 TS800Ⅱ나 TS800Ⅲ와 비교해 20~30%의 공간 절감효과를 실현하고 있다. 배송 작업시의 낭비 요소를 줄였으며 중량의 감소로 일반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운반, 손쉬운 서비스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게 되었다. 코닥은 새로운 트랜드세터는 코닥 제품만으로도 하나의 통합적인 프리프레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고 해상도 이미징 및 첨단 망점을 통해 고품질 인쇄를 구현할 수 있다고 소개한다. 현장에서의 손쉬운 속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것과 친환경 무현상 시스템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어 현상기 및 현상액 비용을 줄이기 위한 중복투자 비용을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코닥의 트랜스세터800은 최대 2400dpi의 해상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제품의 사양에 따라 수동 및 자동으로 CTP판의 탈착을 선택할 수 있다. 자동의 경우 시간당 최대 50장까지 판 장착 및 탈착을 실현할 수 있다.

#### 3만 카피 이상 판매된 코닥 터잡기 소프트웨어 Preps5와 Preps6

코닥의 Preps는 코닥 프리너지 컨넥트, Evo 등의 소프트웨어에 통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아포지, 램페이지, 넥스스 등과 같은 립과 워크플로에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독적인 사용도 가능하다. 운영체제로 매킨토시 10.6과 윈도우 7의 최신 체계를 지원하며 MIS로부터 완성된 편집본을 가져오거나 인쇄, 재단, 접지를 조정하기 위한 JDF를 저장할 수 있다.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